

2016년 10·11·12월

Family Day 가정예배 자료집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우리집”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시와 찬미와 기도로 새로워지는 가정)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편 8:3~4)

10·11·12월

목차

-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03
- 가정예배의 목적과 우리 가족 약속	04
- 예배 이렇게 드려요	05
- 10·11·12 월 교육부 주요활동	06
- 10·11·12월호 소개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시와 찬미와 기도로 새로워지는 가정)	08

가정예배 이렇게 드려요 (1-13주 실제)

1주 (10/2~10/8)	우리의 깊은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10
2주 (10/9~10/15)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 하나님 없는 수고	12
3주 (10/16~10/22)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14
4주 (10/23~10/29)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16
5주 (10/30~11/5)	진실함을 지키는 삶;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18
6주 (11/6~11/12)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	20
7주 (11/13~11/19)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	22
8주 (11/20~11/26)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	24
9주 (11/27~12/3)	주를 사모하고 그 장막과 품에 거하는 자들	26
10주 (12/4~12/10)	영락교회 신앙지도원칙	28
11주 (12/11~12/17)	평화로운 세계	30
12주 (12/18~12/24)	예수	32
13주 (12/25~12/31)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새해를 준비함	34



*표지일러스트

[아름다운 밤하늘] 장현주_ 2016
29.7x21cm, CG on Paper

스페셜데이

가 족 활 동 1	너의 기도가 들려	36
가 족 활 동 2	별빛 속에 빛나는 하나님	39
가 족 활 동 3	나는 시인이다	43
가 족 활 동 4	온 가족 감사 바구니	45
가 족 활 동 5	교회안에서 감사하는 우리가족	49
가 족 활 동 6	우리 가족만의 말씀묵상	53



가정예배 Family Day(패밀리 데이) 소개

“예배하는 가정 행복한 우리집”

예배란,

하나님께 나아가 만나는 사건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새롭게 세워지는 시간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열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아가며, 예배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 자신과 삶을 드리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롬 12:1-2, 요 4:23-24)

예배는, 그러므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사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삭 가족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 가족은 예배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 새 출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가족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공유하게 되고 서로의 삶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게 되며, 신앙이 자녀 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정예배는, 그러므로 가정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예배로 가득차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초 위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 먼저 가족이 함께 예배함으로 세웁시다.

“...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시 133:3)

패밀리데이는 일주일에 한번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예배 안에서 회복하는 영락의 모든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가정예배의 목적과 우리 가족 약속

가정예배를 통하여

- ① 우리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 ② 부모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며,
- ③ 가정이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지고,
- ④ 자녀를 다음세대의 예배자로 세워나간다.

우리 가족 약속

온 가족이 다 모일 수 있는 요일, 시간,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합니다. (예: 거실, 부엌식탁 등)

- ① 예배인도자는 기도자를 정하고, 예배에 필요한 주제송 음원과 예배자료 집을 미리 준비합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www.youngnak.net)
- ② 가정예배를 드릴 때, 자녀들이 나누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③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④ 자녀가 없는 부부 가족이나 일인 가족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⑤ 가정예배 에티켓
 - 1) 정해진 시간에 예배드립니다.
 - 2) 휴대폰과 TV는 꺼둡니다.
 - 3) 자리에 바르게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예배 이렇게 드려요

① 찬양

주어진 찬양을 가족이 함께 부릅니다.

QR 코드를 통해 찬양을 직접 들으실 수 있습니다.

② 말씀읽기(개역개정)

한 주간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족들과 함께 읽습니다.

다같이 합독하거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③ 이해하기&적용하기

가족 중 한 사람이 책자에 기록된 내용을 읽습니다.

다른 가족들은 경청하도록 합니다.

④ 팡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10·11·12월 교육부 주요활동

10 OCTOBER 2016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9/30	1 유치부: (~11월) 토요배움터 아동부: (~11/12) 부모세움학교 아동부: (~11/12) 센싱더 스토리 아동부: (~11/19) 어린이제자훈련 사랑부: (~11/19) 열린주말학교 중등부: (~11/19) 제자훈련 (YDS) 중등부: 토요비전기도회 대학부: (~11/26) 리더십양육과정 LTS 교사교육부: 63기 교사교육 개강 영유아유치부: 유니게학교 가족캠프
						대학부: (~11월 화, 목, 금, 토) 포맨의 고민상담소
2	3 유년부: 교사아유회 초등부: 교사아유회	4	5	6	7	8 영유아유치부: (~12/3) 주모야학교 청년부: (~11/22) 리더십학교
9 유년부: PaPa's day	10	11	12	13	14	15 영유아유치부: (~11/19) 부모코칭 프로그램 중등부: 교사 아유회 고등부: 교사 아유회
16 중등부: 학부모 초청예배	17	18	19	20	21	22 유치부: (~11월) 토요배움터 고등부: (~11/5) 수능비전토요기도 교사교육부: 교사 교육 수련회
23 초등부: 가을소풍	24	25 중등부: (~12/27) 재녀사랑기도회	26	27	28	29 청년부: (~12/3) 성경 통독회 (구약)
30 아동부: 리틀스타	31					

11 NOVEMBER 2016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영유아유치부: (~11/26)조이스쿨
6 중등부: (~11/20) 얇은 양 찾기 프로젝트 대학부: (~12/31) 고3 웰컴사역	7	8	9	10 고등부: 수능당일 기도회	11	12 ← 아동부: 주말학교 가족캠프 →
13 중등부: 여호수아 찬양대 정기연주회 대학부: 친구초청 집회	14	15	16	17	18 ← 아동부: 제자 훈련 어린이캠프 → ← 고등부: Joy Together ...	19
20 초등부: 가족초청예배 중등부: 총동원 주일 및 추수 감사 예배 standing worship고등부: Joy Together →	21	22	23	24	25 ← 고등부: 고3 수련회 →	26
27 대학부: 리더블레싱	28	29	30			

12 DECEMBER 2016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교사교육부: 63기 교사교육 종강	5	6	7	8	9	10
11 고등부: 찬양대 정기연주회	12	13	14	15	16 ← 청년부: 리더수련회 →	17
18	19	20	21	22	23	24 대학부: 성탄행사
25 성탄절 전세대 예배	26	27	28	29	30	31



10~12월호를 시작하며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시와 찬미와 기도로 새로워지는 가정)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3-4)

이제 가을입니다. 그 문턱을 지나 조금 가면 겨울이 오겠지요.
가을이면 책이 더 손에 잡힌다 하는데 시집이라도 한 줄 읽으십니까?

높은 하늘을 보며 문득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 찬바람이 쐬하고 불면 한 해 돌아보는 상념이 깊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새 지나가고 있는 한 해의 시간은 종종 그동안 맺은 열매가 무엇이나 묻고는
하는데 그래도 감사절이 다가오면 있던 없던 감사의 열매가 다 생각나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올 해도 어김없이 자라났고, 많이 먹었고, 더 먹어야 하는데
먹어야 하는 부모들은 그 사이에 기도도 먹이랴, 믿음도 먹이랴 수고가 많았습니다.

바쁘게 살았던 날들이
높아지는 하늘을 보면 잠시 눈이 멈춥니다.
그렇게 높은 하늘에, 차가워지는 바람에, 허해지는 마음을 붙잡고 기도를 읊조리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 김현승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을은 아마도 한 줄의 시와도 같은 상념이 기도가 되고,
기도는 어느새 영성으로 깊어져가는 질어가는 나뭇잎과 같은 때인 것 같습니다.
설령 그 나뭇잎이 떨어져도 내 영혼의 텃밭에 소복이 쌓여 내년을 기다리는 양분이
되겠지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저 달거나, 맵거나, 자극적이기만한 세상 맛에 머물기 보다는
한 절의 시에서 느껴지는 정서와
조용히 읊조리는 기도와
한편의 시편에서 차곡, 차곡 입혀지는 영성을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가정예배를 맛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했던 한 해였습니다.
이제 그 4번째 길목에 서서 참으로 영적 깊이와 향을 더해가는 가정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번 가정예배는 계절의 옷을 좀 입고,
시의 향기를 함께 담고
시편 말씀의 영성을 담아
함께 시와 찬미와 가정의 기도로 이어지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절과 동심을 담은 윤동주의 동시(童詩)와*
영혼의 기도와 찬미를 담은 시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예배하며
가을과 겨울이 더욱 영성으로 깊어가는 가정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예배의 말미 ‘판세’에는 가정이 함께 드리는 기도문과 시를 하나님께 또 서로를
향하여 작성해 봄도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대림절과 성탄절의 시간에는
온 교인과 온 가정이 함께 원포인트로 주일예배, 부서예배, 소그룹활동,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의 귀한 소식을 온 교우와 가정이 함께 누리고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같이 준비합니다.

*여기에 담은 윤동주의 동시는 그의 유고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1948)에서
동시로 구분되는 것들 중에서 선택하였습니다.

찬 양 ▶ 279장

동시 읽기 및 감상

산울림

까치가 울어서
산울림,
아무도 못 들은
산울림.

까치가 들었다
산울림,
저 혼자 들었다
산울림.

말씀 읽기 ▶ 시편 5:1-7

- 1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 2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며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 3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 4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 5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 6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 7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우리의 깊은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해 하기

시편 5편은 고난의 때에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의 시입니다. 본 시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구원의 확신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고통을 평안으로, 분노를 기쁨으로 바꾸는 능력임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은 시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으로 인한 고초를 호소하며(1-3절),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며(4-6절),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고 있습니다(7-12절). 시인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1절)” 외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호소해 보세요. 지금 이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적용 하기

다윗은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다윗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의지하거나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간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고통스러운 호소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절망하기 보다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간구를 듣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어려운 순간 우리 가족은 무엇을 의지하나요? 가족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421장

동시 읽기 및 감상

만돌이

만돌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전봇대 있는 데서
돌재기* 다섯 개를 주웠습니다.

전봇대를 겨누고
돌 한 개를 뿌렸습니다.

-딱-

두 개째 뿌렸습니다.

-아뿔싸-

세 개째 뿌렸습니다.

-딱-

네 개째 뿌렸습니다.

-아뿔싸-

다섯 개째 뿌렸습니다.

-딱-

다섯 개에 세 개

그만하면 되었다.

내일 시험,

다섯 문제에 세 문제만 하면-

손꼽아 구구를 하여 봐도

허양** 육십 점이다.

볼 거 있나 공차러 가자.

그 이튿날 만돌이는

꿈쩍 못 하고 선생님한테,

흰종이를 바쳤을까요?

그렇잖으면 정말

육십 점을 맞았을까요?

*돌재기: 자갈

**허양: 거뜰히

말씀 읽기 ▶ 시편 127:1-5

- 1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 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 3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 4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 5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안에서의 수고, 하나님 없는 수고



이 해 하 기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은 오직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불안의 연속이며, 아무리 성실하게 수고를 한다 해도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에 대한 여호와와의 절대 주권을 노래하며 그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선, 솔로몬은 그의 건축에 대한 경험에 비추어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자가 건축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완공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이론 성공적인 건축은 하나님이 이룩하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은 ‘파수꾼’을 예로 들어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설명합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밤을 새워 철저히 지켜도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예시로 듭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국가를 안전하게 지키고 발전시킨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적 용 하 기

지혜자 솔로몬의 시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그의 삶과 업적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노래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솔로몬의 지혜와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부족함과 교만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족을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고 나의 지금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33장

동시 읽기 및 감상

눈 감고 간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랑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었는데
눈감고 가거라.

가진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엿든 눈을 왓작떠라.

말 씬 읽 기 ▶ 시편 8:1-9

-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 3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 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을 깊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이 해 하 기

시편 8편은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고 지키게 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운 솜씨를 노래합니다. 더 나아가 시인은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운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능을 인간에게 주셨음을 찬미합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보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하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시인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며 돌보십니다(4절).

적 용 하 기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반면 인간은 세상 만물 가운데 작고 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기억하시며 돌보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시인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4절).” 인간은 종종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거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처할 때마다 찾아와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높고 청명한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들고 있는 산과 나무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을 생각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화음을 맞추어 창조주 하나님을 아름답게 찬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383장

동시 읽기 및 감상

병아리

뽀뽀뽀

엄마 젖 좀 주

병아리 소리.

깹깹깹

오냐 좀 기다려

엄마닭 소리.

좀 있다가

병아리들은.

엄마 품속으로

다 들어갔지요.

말 씬 읽 기 ▶ 시편 121:1-8

-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시리로다
-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해 하 기

시편 121편의 기자는 시련과 역경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힘을 얻기 위해 힘센 자를 바라보는 것은 삶의 지혜입니다. 원수의 위협을 벗어나기 위해 원수를 제압할 수 있는 권세자를 의지하는 것은 슬기로운 처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위기 앞에서 자신을 구해 주고 유용한 도움을 줄 존재를 찾기에 분주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도움이 될 힘과 도움은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힘, 곧 권력과 재력과 권세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릴 너무나도 허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험한 산과 같은 어려움을 만난 성도에게는 그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움을 주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의 모든 사건들까지 지배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 짧은 시편에 '지키시다'라는 동사가 6회나 등장하는데 이는 인간의 도움이 철저하게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줄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여 줍니다. 인생의 길에 때로 '산', '비틀거리는 발', '낮의 해', '밤의 달'이 있지만 나와 우리 가족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 용 하 기

위기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정도'입니다. 삶이라는 순례의 길 가운데 험한 산을 바라보며 한숨 쉬거나 절망하지 말고 산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올리며 산을 향해 선포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믿는 각 사람의 하나님이 되시며 동시에 함께 예배로 나아가는 가정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골짜기와 같은 세상과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말고 저 높은 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봅시다. 그리고 가족이 함께 오늘 본문 1,2절을 선포하며 이번 한 주를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585장

동시 읽기 및 감상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 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엇든 눈을 왓작떠라.

말 씬 읽 기 ▶ 시편 146:1-10

- 1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 2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 3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 4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흠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 5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 6 여호와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 7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 8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 9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 10 시온아 여호와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진실함을 지키는 삶;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해 하 기

목숨이 끊어지면 한낱 흙에 지나지 않는 인간(4절)과는 달리,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지으시고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또한, 약한자의 고통에 함께하시면서 그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어그러진 재판을 바로잡으시며,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억울하게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장애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악인의 계획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물론 때때로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의 길을 꺾으시고, 의인의 길을 곧게 하시려고 언제나 성실하게 일하십니다. 사람의 신의와 보호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도 변함없이 진실함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십니다.

적 용 하 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나의 영혼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외칩시다. 살아 있는 내내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우리 가족의 삶을 항상 받쳐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력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 그 분께 소망을 두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가족 모두가 각자의 영혼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끊임없이 감사함으로 찾아가며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을 누리봅시다.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347장

동시 읽기 및 감상

소년

여기저기서 단풍잎 같은 슬픈 가을이 뚝뚝 떨어진다.
 단풍잎 떨어져 나온 자리마다 봄을 마련해 놓고
 나뭇가지 위에 하늘이 펼쳐 있다.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려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듯한 볼을 씻어 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다시 손바닥을 들여다본다.
 소금에는 맑은 강물이 흐르고, 맑은 강물이 흐르고,
 강물 속에는 사랑처럼 슬픈 얼굴 --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이 어린다.
 소년은 황홀히 눈을 감아 본다.
 그래도 맑은 강물은 흘러 사랑처럼 슬픈 얼굴 -- 아름다운 순이의 얼굴은 어린다.

말 씬 읽 기 ▶ 시편 42:1-8

- 1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 2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뵈을까
- 3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고
- 4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 5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 6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 7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 8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



이 해 하 기

시온을 떠나 원수들의 조롱을 당하는 중에 지난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던 때를 회고하며 그 때로 돌아가고픈 애절한 심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포와 엄몰하는 파도와 같은 환난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심령으로 곳곳이 극복하겠다는 신앙 결단과 다짐을 발하며 구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망은 최후의 보루(시냇물)마저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유일한 생존 수단으로서의 하나님 찾기였습니다. 그가 바란 것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목마른 사람,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간절해지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재가 강하게 느껴지던 바로 그 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9-11절에서 불평처럼 보이는 시인의 울부짖음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나온 신뢰의 표현이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요구하는 담대함입니다. 평탄치 않은 삶이 시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내 생명’, ‘내 반석’, ‘내 방패’, ‘내 보호자’, ‘내 구원’, ‘내 도움’, ‘내 의미’, ‘내 보람’ 이라고 부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난이 없었더라면 결코 나올 수 없는 이의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시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적 용 하 기

오늘 이 땅에는 사람을 구원할 것 같은 많은 종교가 있고 사상이 있는데도 사람들은 갈수록 목말라 하며, 절망 가운데 가장 소중한 생명을 스스로 끊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들이 물이 흐르지 않는 시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타는 목마름을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유일하고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며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처한 상황 자체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일지라도 소망을 꺾지 않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갈망하는 마음으로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는 가운데 “부재”가 “임재”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524장

동시 읽기 및 감상

자화상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 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아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말씀 읽기 ▶ 시편 32:1-8

-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 2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 5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 6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 7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 8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부끄러운 우리 모습이라도 용서하시고 다시 이끄시는 하나님



이 해 하 기

자신의 지은 죄를 은혜할 때부터 시인의 입에서는 종일 노래대신 신음이 흘러나왔고, 주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죄책감에 짓눌려 기진맥진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내 모든 삶의 행동과 생각에 무질서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됩니다. 새 날을 맞이하기 전에 은혜의 어둠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고 숨긴 자는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기운이 다 빠지지만 기회 있을 때 마다 주께 기도하여 정직하게 나아가는 자는 ‘여름 홍수’가 ‘범람’해도 주님이 구원의 노래로 감싸주십니다. 죄는 우리의 기도줄을 끊어버리지만, 죄의 고백은 더 큰 절망에서도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줄입니다.

적 용 하 기

시인은 자기 죄를 숨긴 자의 고통과 고백한 자의 기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죄의 복과 즐거움으로 초대하며 부끄러움의 길을 포기하라고 권고하십니다.

내가 온갖 죄를 숨기기를 철저하게 포기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내 온갖 죄를 숨기고 가리우십니다. 죄를 지었으니 지었다고 말한 것 뿐 인데 죄 없는 자로 인정받는 것이 우리가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4장 7~8절) 하루 해가 지기 전에 이 복을 누리기 위해 우리 가정이, 또 내가 고백해야 할 죄는 없습니까?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589장

동시 읽기 및 감상

굴뚝

산골작이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몽기몽기 웨인연기 대낮에 솟나

감자를 굽는 게지 총각애들이
깜박깜박 검은 눈이 모여 앉아서
입술에 꺼멓게 숯을 바르고
옛이야기 한 커리에 감자 하나씩.

산골작이 오막살이 낮은 굴뚝엔
사랑살랑 솟아나네 감자 굽는 내.

말 씬 읽 기 ▶ 시편 133:1-3

- 1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 2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 3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 대한 감사와 즐거움



이 해 하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의 또 하나의 생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다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입니다(레19:2, 살전4:3). ‘거룩’이란 말은 ‘구별된, 다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박해하더라도 그들을 축복하라(14절)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올라(15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면 배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자신의 기쁨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척, 있는 척, 가진 척을 해도, 우리는 겸손할 것(16절)을 가르칩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고(18절), 원수를 갚지 않으며(19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17, 20-21절)이야말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적 용 하 기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향해서 악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인간적으로 그들과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비록 악해도,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도 용서하고 화해하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관해 주셔서, 세상과 다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125장

동시 읽기 및 감상

밤

외양간 당나귀
아양 양 외마디 울음 울고,

당나귀 소리에
으-아 아 아기 소스라쳐 깨고,

등잔에 불을 달아요.

아버지는 당나귀에게
짚을 한 키 담아 주고,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한 모금 먹이고,

밤은 다시 고요히 잠들어요.

말 씬 읽 기 ▶ 시편 84:1-7

- 1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 2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 3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 4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 5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 6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 7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를 사모하고 그 장막과 품에 거하는 자들



이 해 하기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곧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바른 신앙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13절)고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의 한 사람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단한 인물로 생각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15절)고 묻습니다. 사람들의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 때,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정말 귀한 신앙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단지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적 용 하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변화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향한 바른 신앙고백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늘 확인해야 합니다. 이 반석과 같은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때, 결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늘 고백하고, 그 기초 위에 더욱 든든히 세워져서,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으로부터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123장 -저 들 밖에 한밤중에-



1. 저 들 밖 에 한 밤 중 나 에 달 이
2. 저 들 밖 에 한 밤 중 나 에 달 이
3. 그 한 밤 중 나 에 달 이
4. 저 들 밖 에 한 밤 중 나 에 달 이

들 상 하 아 사 람 기 보 나 타 뵈 가
에 한 여 기 신 영 애 자 신 영 애 자
지 빛 바 보 그 들 비 가 니 하 고
연 롭 고 그 들 비 가 니 하 고
하 려 주 니 아
어 광 신 령 그
중 이 션 세
주 나 그 세

나 신 소 의 들 었 내 노
타 날 영 조 의 들 었 내 노
뵈 애 오 자 들 었 내 노
가 자 에 들 드 었 내 노

allelu allelu allelu allelu allelu allelu

이스 라 엘 왕 미 나 었 내 마 렘

말 씬 읽 기 ▶ 로마서 1:8-17

- 8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 9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 10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 11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 12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 13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 14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 15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 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해하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10절)이 있었으나 번번이 여러 사정으로 가지 못한 것(13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교회의 성도들을 직접 만나서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고 싶은 바울의 마음이 간절했지만(11절), 상황이 여의치 못했던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편지로 로마교회의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주제는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빛진 자’(14절)로서, 할 수만 있다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합니다(15절). 비록 그들이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나 확신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16절)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는 복음의 진리를 강력하게 증거(17절)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우리 영락교회는 4가지 신앙지도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연합정신의 구현, 세상에서의 하나님 공의의 실현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신앙지도원칙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정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 중심적인 신앙,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 복음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의(義)인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립 71주년을 맞는 영락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 번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정과 교회가 복음적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실천하면서 살아가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건강하고 거룩한 교회들과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에 협력하며, 불의하고 부정직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를 세워 나가는 일에 매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2.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돌린 밤
3.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4.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주 의 부 모 없 어 서 갈 사 가 도 드 릴 때
천 군 천 사 나 터 나 기 베 노 래 불 었 네
별 을 보 고 찾 아 와 풀 어 경 배 드 었 네
그 의 열 굴 광 채 가 세 상 빛 어 되 었 네

아 기 잘 도 잔 다 아 기 잘 도 잔 다 아 멘
구 주 나 셴 도 다 구 주 나 셴 도 다
구 주 나 셴 도 다 구 주 나 셴 도 다
구 주 나 셴 도 다 구 주 나 셴 도 다

말씀 읽기 ▶ 이사야 11:1-9

-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 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엮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해 하 기

이사야 11장은 가장 이상적이고 평화로운 세상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도저히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대상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리-어린양, 표범-어린염소, 송아지-어린사자-살진 짐승-어린아이, 암소-곰, 젖 먹는 아이-독사 같은 짝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살 수 있는, 이상적인 평화를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평화로운 세상은 이상적인 지도자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새의 즐거이에서 한 짝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1절)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이새의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권위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주님의 다스리심을 통해서만, 싸우고 상처 입은 이 세상은 고침을 받고, 전쟁과 다툼이 있는 땅에는 참된 평화가 임하며, 진정한 구원과 생명의 은혜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완전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 질 때, 우리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적 용 하 기

끊임없이 일어나는 테러와 분쟁, 자연재해와 각종 사건사고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 온 세상이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다. 관계는 깨어지고, 공동체적인 삶도 사라져 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고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공동체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의 절기에,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에 초청하며,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을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를 통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평화가 우리의 가정과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1. 그 어린 주 예수 능 자 리 없 어 그
2. 저 록 축 소 리 예 아 기 잘 깨 나 그
3. 주 예 수 내 결 여 가 까 이 게 서 그

귀 하 신 물 이 구 유 예 있 네 저
순 하 신 예 수 우 시 지 않 네 그
한 없 는 사 람 능 베투 시 고 온

하 늘 별 들 이 반 박 이 는 데 그
귀 예 수 를 나 사 람 하 니 새
세 상 아 기 들 다 물 어 주 사 주

어 린 주 예 수 물 위 에 자 네 아 려
날 이 밝 도 록 할 계 하 소 서
품 안 에 안 겨 살 게 하 소 서

말 씀 읽 기 ▶ 마태복음 1:18-21

-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

이해하기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향한 사랑의 마음과 순결을 잘 지키며 결혼의 날을 준비하던 아름다운 청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가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되는 너무 신비하고 놀랍고 한편 두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방식에 마리아는 기도 가운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순종하여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이야기는 처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임신하면 부정하다 하여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은 율법을 지키며 살고자 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기에 율법에 따라 마리아와 정혼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한편 마리아에 대한 깊은 사랑을 생각하여 그녀를 곤혹스럽게 하지 않고 조용히 일을 마무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요셉에게 이 모든 일의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이는 성령으로 된 것과 그 아이가 장차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적용하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매우 간절했습니다.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메시아적인 일을 감당하겠다고 일어났던 인물들과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들은 우리가 만들어 담아 낼 수 있는 그릇이나 방식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갖는 너무도 특별한 이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렸으며, 요셉도 의로운 마음으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자신을 온전히 드리게 됩니다. 성탄은 그토록 기다리던,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게 되는 감격의 시간이요 동시에 그 귀한 하나님의 역사와 선물 앞에 우리 자신의 손을 내밀어 받아들이는 믿음과 순종의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이뤄지도록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다짐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찬 양 ▶ 301장

동시 읽기 및 감상

길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포기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 쪽에 내가 남아 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말씀 읽기 ▶ 시편 130:1-8

-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 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 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 5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 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 8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새해를 준비함



이 해 하 기

무엇인가 상실한 것 같은 마음에 시인은 주머니에 손을 낀 채 길로 나갑니다. 긴 돌담길을 거닐며 생각에 잠깁니다. 해가 저 가며 드리워지는 그림자가 끝없이 이어지는 돌담길을 따라 걷다보면 잃어버린 것, 놓친 것, 아쉬운 것 투성이 같습니다. 굳게 닫힌 쇠문처럼, 그리고 넘어갈 수 없는 돌담이 저편처럼, 그렇게 이미 지나간 나의 시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이 마음에 저미어 옵니다. 그렇게 슬프도록 저녁을 지나 아침을 맞도록 마음의 발걸음은 멈추지 못한 채 잃은 것을 다시 찾아 길을 나섭니다.

시편 기자의 마음은 상실하며 애타하는 마음의 깊이를 더욱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잃어버린 것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입니다. 시편 가지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만을 바라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갈망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 지 저녁을 지나 밤새도록 성벽에 서서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파수꾼의 갈망보다 더 하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시편 기자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외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의 가장 깊은 상실감과 갈망을 채우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하심과 속량을 맛보게 됩니다. 어두운 상실의 시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 밝아오는 새 아침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되어집니다.

적 용 하 기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너무 많은 만남으로 분주하지 않도록 합시다. 반면 시간을 내어, 한 해를 지나면서 비워졌던 자리, 잃어버렸던 것, 놓쳤던 것을 다시 돌이켜 봅시다. 특히 가정생활 중에, 가정 안에서의 신앙생활 중에 비워둔 채 놓았던 것, 그래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잃어버린 것, 관계, 시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자녀에게는 자녀만의 돌아봄의 시간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부부가 함께 그 빈자리의 안타까움과 채워져야 할 것의 소중함을 다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마음에 참으로 있어야 할 것들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바라는 마음”이 생겨서 기도로 이어지고, 이 기도를 함께 나눔 속에서 가정이 함께 새 해 아침을 맞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팽세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한 은혜를 나누고 가족들의 기도제목을 적고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정의 팽세

[팽세]는 ‘생각, 묵상’을 뜻하는 말로, 16세기 프랑스의 천재적인 수학자, 철학자 그리고 기독교 변증가였던 파스칼의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 활동목표 ■

우리 마음 속 깊은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요.

■ 준비물 ■

활동지, 종이컵 2개, 가위, 실, 투명테이프, 송곳(없을시 칼)

■ 활동 매뉴얼 ■

1. 활동지를 오려 종이컵에 붙여주세요.
2. 종이컵 바닥에 구멍을 뚫어주세요.
3. 구멍에 실을 넣어 투명테이프로 고정시켜주세요.
4. 2개의 종이컵을 연결해주세요.
5. 먼저 한명이 종이컵에 입을 대고 자신의 기도제목을 이야기해주세요.
6. 그 기도제목을 들은 사람이 상대를 위해 종이컵에 입을 대고 기도해주세요.
7. 서로 번갈아가며 함께 기도해요.



■ 활동목표 ■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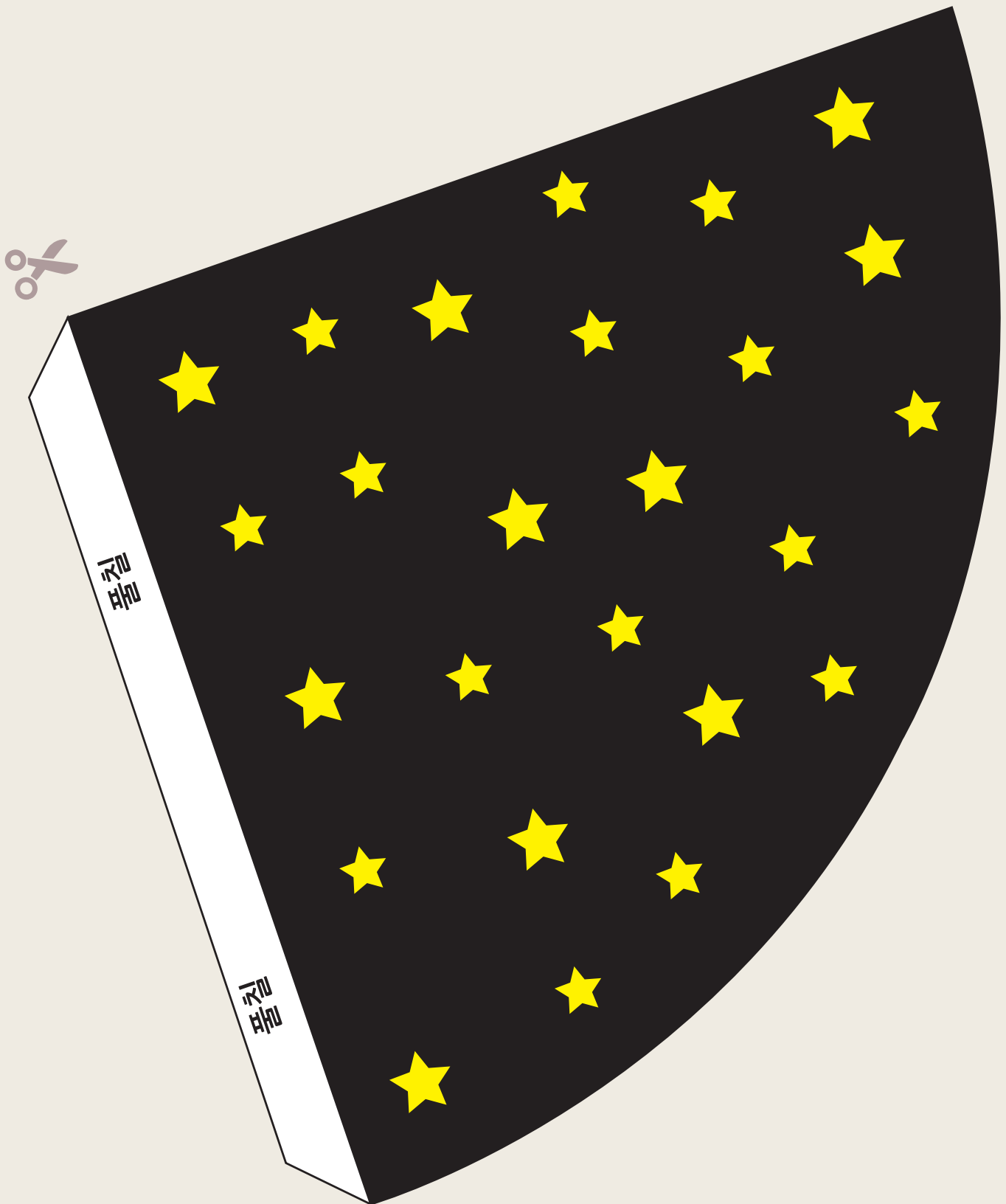
■ 준비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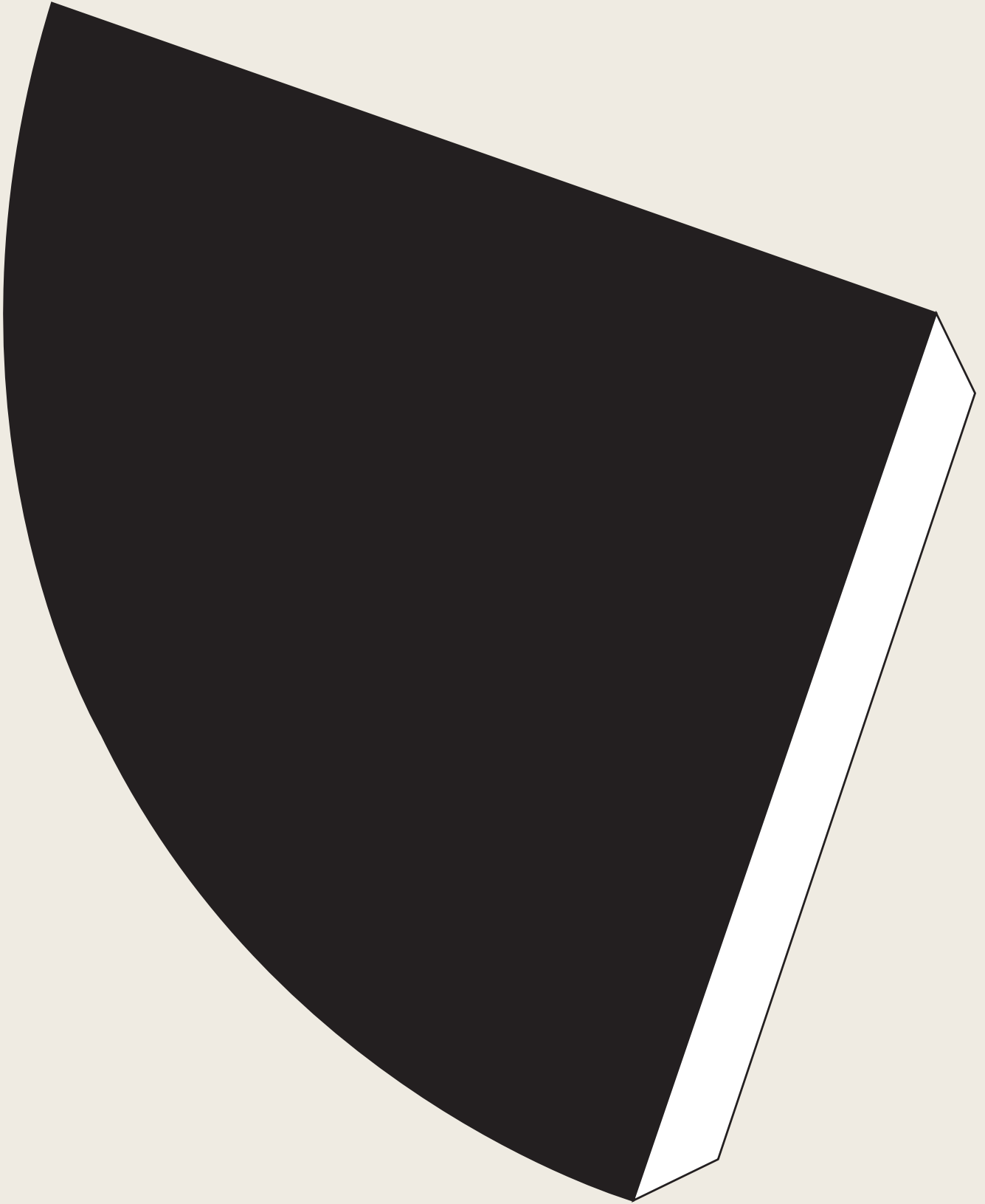
활동지, 송곳, 가위, 풀, 핸드폰 조명(또는 손전등이나 티라이트)

* 핸드폰 조명 대신 티라이트를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 활동 매뉴얼 ■

1. 활동지를 오려주세요.
2. 활동지에 인쇄된 별자리를 송곳을 이용해 뚫어주세요.
3. 활동지의 양끝을 붙여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4. 완성된 작품을 핸드폰 조명 위에 올려주세요.
5. 실내의 불을 꺼주세요.
6. 방안에 나타나는 별을 보며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을 같이 불러요.





■ 활동목표 ■

가족이 함께 시를 만들며 진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요.

■ 준비물 ■

활동지, 필기도구, 가위

■ 활동 매뉴얼 ■

1. 활동지를 오려주세요.
2. “가정예배”로 각자 4행시를 지어보세요.
3. 가족이 돌아가며 자신이 지은 4행시를 읊어보세요.
4.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기도해요.



가
정
예
배



가
정
예
배



가
정
예
배



가
정
예
배

■ 활동목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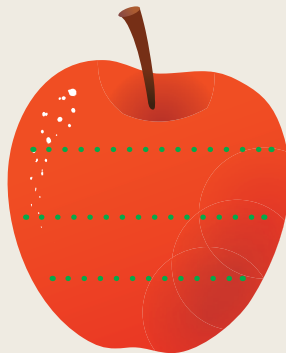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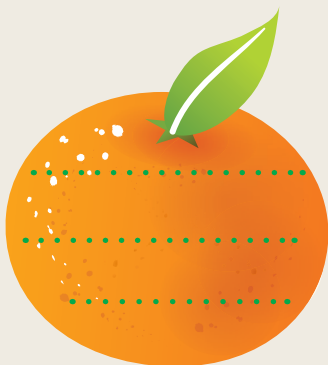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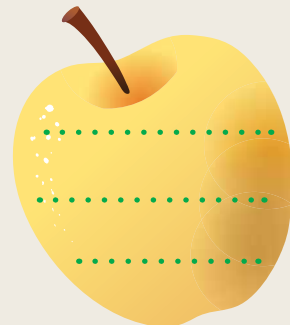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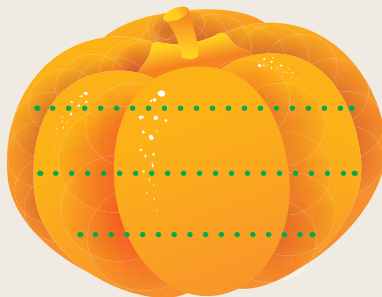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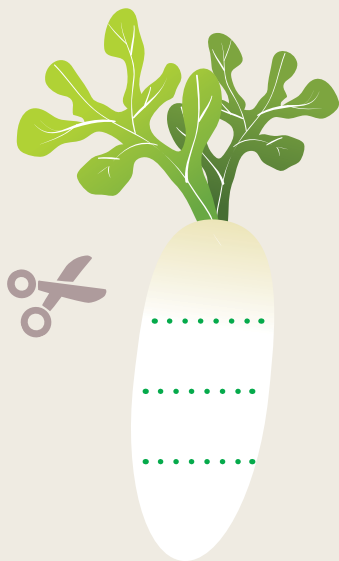
온 가족이 모여 감사의 이유들을 작성해보고,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 준비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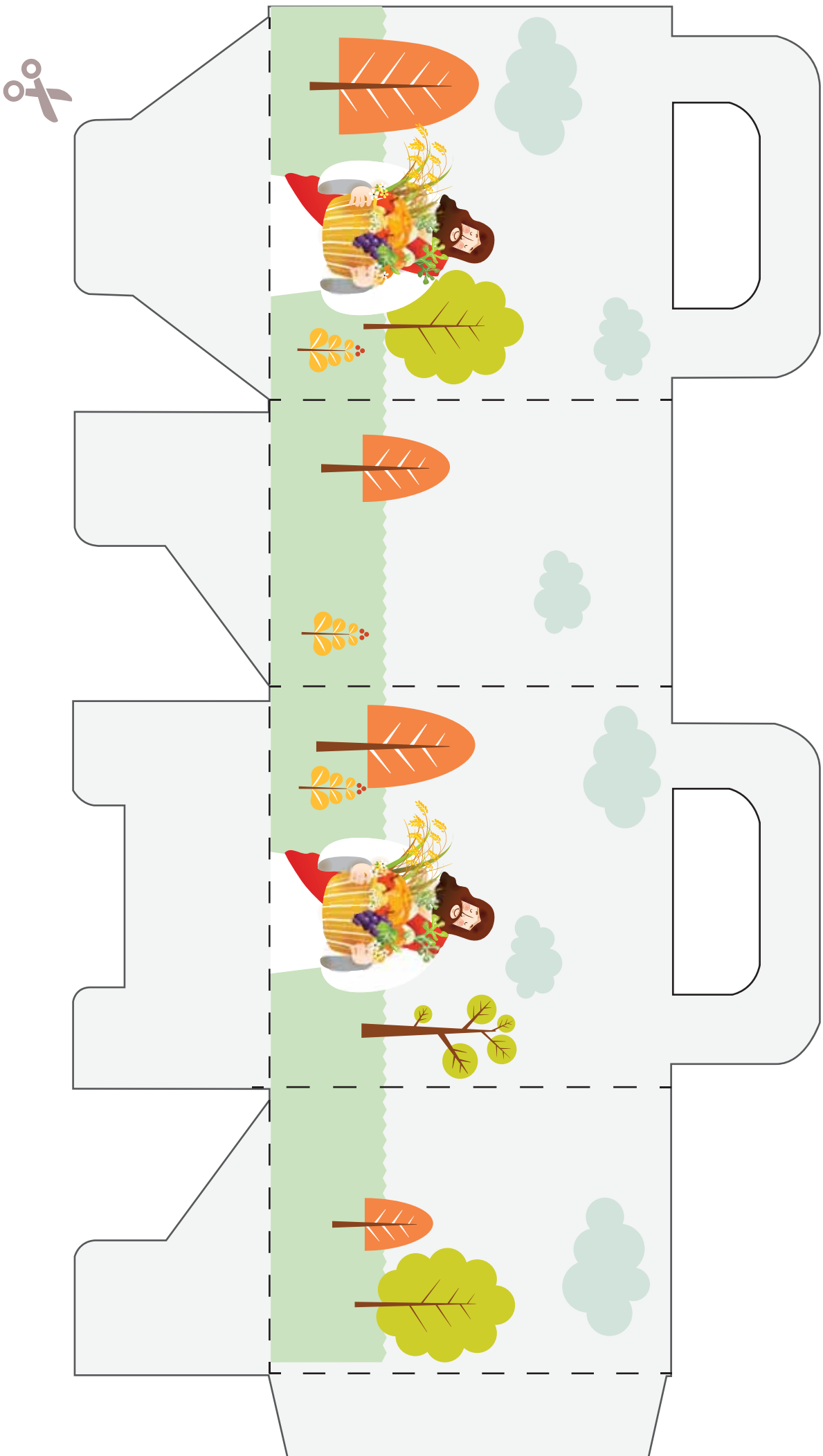
바구니 도안, 과일 그림, 가위, 풀, 펜

■ 활동 매뉴얼 ■

1. 바구니 도안과 과일 그림을 오린다.
2. 바구니는 점선을 따라 접어 풀칠하여 완성한다.
3. 가족이 모여 각각 감사의 제목을 나누고 과일 그림에 적는다.
4. 한 사람씩 감사 제목을 적은 과일 그림을 바구니에 넣고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마무리 한다.



온 가족 감사 바구니



■ 활동목표 ■

우리 가정이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했던 일들을 주의 궁정인 영락교회 건물 카드에 적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 준비물 ■

가위, 테이프, 필기구

■ 활동 매뉴얼 ■

1. 활동자료집에 제시된 영락교회 본당, 50주년 기념관, 선교관 건물(사진) 모형을 오릅니다.
2. 1월부터 9월까지 우리 가족이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한 달에 한 개씩 한 줄로 기록해 봅니다.
3. 완성된 세 건물을 방문이나 냉장고, 현관에 붙여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주님의 장막이며, 그 안에서 살아가기에 감사함이 넘침을 고백하기 바랍니다.



1월 감사

2월 감사

3월 감사

4월 감사

5월 감사

6월 감사



7월 감사

8월 감사

9월 감사

■ 활동목표 ■

2017년, 가족과 함께할 말씀묵상 시간, 말씀묵상 데이 계획하기!

■ 준비물 ■

달력, 성경책, 노트, 펜

본 가족활동은 기존에 정해진 방식을 떠나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말씀묵상 계획과 방식을 만드는 일을 중요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알려진 자료를 참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활동 매뉴얼 ■

1. 2017년 달력과 성경책, 그리고 펜을 가지고 옵니다.
2.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말씀들이 각각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메모합니다.
3. 이제 온 가족이 말씀 묵상을 할 시간을 정합니다. (하루, 한주, 격주 단위로 요일과 시간을 정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말씀묵상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형편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격주)
4. 온 가족이 약속한 날은 “말씀묵상 데이”와 같은 이름을 붙여서 가족만의 특별한 날로 기념합니다.
5. 2번에서 메모한 성경책 각 권의 장 수를 기준으로 말씀묵상 데이에 어떻게 묵상을 할 것인지 온 가족이 함께 계획을 짭니다.
6. 온 가족의 머리에서 나온 계획을 따라 달력에 기록을 합니다.
7. 이제 당번을 정합니다. 당번이 할 일은 정해진 말씀묵상 시간 또는 말씀묵상 데이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몇 시간 전, 또는 몇 일 전에 온 가족에게 공지합니다.)
8. 2017년, 가족과 함께할 말씀묵상 시간 또는 말씀묵상 데이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시 #1

우리 가족 말씀묵상 시간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시간 20:00 창세기 1-5장	시간 22:00 창세기 6-10장	시간 22:00 창세기 11-15장	시간 22:00 창세기 16-20장	시간 22:00 창세기 21-25장	시간 22:00 창세기 26-30장	시간 22:00 창세기 31-35장

예시 #2

우리 가족 말씀묵상 데이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1	2	3	4	5	6	7
시간 20:00 창세기 1-5장						시간 20:00 창세기 6-10장
8	9	10	11	12	13	14
시간 20:00 창세기 11-15장						시간 20:00 창세기 16-20장



